

미야코 명소도회

『미야코 명소도회(都名所圖會)』는 교토와 그 주변의 여행 안내서로서 1780 년에 출판된 시리즈입니다. 이 시리즈는 널리 인기를 얻어 교토와 에도(현재의 도쿄)를 잇는 교통로인 도카이도와 현재의 미에현에 있는 이세 신궁의 삽화가 들어간 안내서 등 유사한 많은 작품이 생겨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『미야코 명소도회』는 교토의 명소를 글과 상세한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 사용된 그림은 대부분이 조감도이며, 이는 닌나지 절을 포함하여 소개되어 있는 명소를 바라다볼 수 있는, 물리적으로 높은 장소가 거의 없었음을 감안하면 특기할 만한 점입니다. 따라서 화가들이 상상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비율과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부분에는 구름을 그린 곳이 종종 있습니다. 이 수법은 벚꽃이 피는 계절의 경내를 묘사한 닌나지 절 그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. 이 그림에서는 벚나무 아래에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, 이는 현대에도 매년 봄이 되면 일본 곳곳의 공원에서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. 당시의 닌나지 절 경내에 벚나무가 있던 범위는 좀 더 좁았다고 보이는데, 여행 안내서였기 때문에 벚나무를 볼 수 있는 범위나 아름답게 핀 꽃을 자랑하는 모습이 다소 과장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.